

한국어 습득에서의 부정적 증거의 재검토*

이 현 진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습득과정에서 부정적 증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한 아동의 2년 0개월에서 3년 3개월 사이의 종단적 관찰 자료와 2년 0개월에서 4년 11개월 사이의 30명 아동의 횡단적 관찰자료를 분석하였다. 통사적 오류에 대한 분석은 이현진(1992)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문자 '거'의 오류, 조사 사용에서의 오류, 동사의 어미활용에서의 오류등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문장에 대한 성인의 반응은 다음의 8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1) 정확반복 2) 축약된 반복 3) 확대된 반복 4) 문장 수정 5) 확인 질문 6) 대화 계속 7) 무반응 8) 명시적 반응. 8개의 범주 중 문장 수정과 명시적 반응만은 비문법적 문장 다음에 주어지고 나머지 6개 범주에 속하는 반응은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 다음에 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진(1992)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 반응과 문장 수정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0%-1%). 소위 암시적 부정적 증거로 분류될 수 있는 다른 6개 범주 중 '대화 계속'과 '무반응'은 암시적 부정적 증거라기 보다는 자연스런 대화의 흐름으로 볼 수 있기에 이 두 범주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4개의 범주, '같은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대된 반복', '확인 질문'에 해당하는 반응은 아동의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에 대해 다른 분포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증거의 정의를 확대하여 암시적 부정적 증거까지를 포함한다 할 지라도 그것이 아동의 비문법적 문장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최근의 발달 언어 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언어 입력 자극에서의 부정적 증거(Negative Evidence)가 아동의 언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이현진, 1992; Marcus, 1993; Farrar, 1992; Gordon, 1990; Bohannon III, McWhinney, & Snow, 1990; Bohannon III, & Stanowicz, 1988; Pen-

ner, 1987; Demetras, Post, & Snow, 1986; Hirsch-Pasek, Treiman & Schneiderman, 1984; Brown & Hanlon, 1970). 부정적 증거는 어떤 문장이 그 나라 언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구조일 때 그 문장 구조가 비문법적이라고 알려 주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 아동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 하나는 주격 조사 '이/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이다. "곰이가 자고 있어요"라고 아동이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 육성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방대한 자료를 모아 주신 김혜리교수님과 녹음에 참여한 지원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 정리를 도와준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홍지숙, 연수정, 김유정, 권정임께도 감사드립니다.

말했다면 이것은 “꿈이 자고 있어요.”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아동이 발화한 이러한 문장에 대해 성인이 “꿈이가 자고 있어요’가 아니지. ‘꿈이 자고 있어요’라고 해야지.”라고 반응한다면 이 성인의 반응은 ‘부정적 증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언어 발달 과정을 볼 때 아이들은 특정 시기에 성인 문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비문법적인 문장들을 발화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문법적인 문장들은 아이들의 언어가 발달됨에 따라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성인 문법에서 허용하는 구조들로 바뀌어 버린다. 여기서 제기되는 언어 습득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어떻게 이러한 오류에서 어떻게 벗어나 성인문법에서 허용하는 문장 구조를 산출하게 되는가이다. 아동이 언어적 오류를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은 아동이 발화하는 잘못된 문장에 대해 성인이 그것을 지적하고 정확한 문장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 부정적 증거에 의존하여 언어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언어적 오류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부정적 증거에만 의존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은 매우 수동적이고 훈련적이 될 것이다. 아동이 보이는 모든 오류에 대해 성인들은 그 오류를 일일이 수정하여 주어야 하고 만약 수정되지 않은 언어적 오류가 있다면 아이들은 그 잘못된 표현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답습적이라기 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진행되는 창의적인 과정으로 가정하고 있다. 특히 언어의 본유적 능력을 강조하는 습득가능성 이론가(Learnability Theorist)들은 언어 습득을 이끌어

가는 언어에 대한 생물학적이 구조가 우리의 대뇌의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능력에 의해 아동은 자기의 모국어를 습득해나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적 오류를 만들어 내는 경우 이를 극복하고 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아동에게 자리잡고 있는 생물학적인 언어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주장을 언어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동의 언어 습득이 부정적 증거보다는 실증적 증거(Positive Evidence)를 기초로 아동 내부에 있는 생득적인 내적 기제에 의해 진행되어 간다고 기술할 수 있다(Pinker, 1989; Wexler & Culicover, 1980).¹⁾

부정적 증거가 언어 습득 과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Brown과 Hanlon(1970)의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Brown과 Hanlon(1970)은 3명의 아동의 산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어 습득 상황에서 어른들이 아동의 통사적 비문법성을 지적하여 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하였다. 아동들이 발화하는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문법적 정확성보다는 그 표현의 의미적 적절성에 대한것임을 발견하고 이러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아동 언어에서 부정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²⁾ 그러나 Brown과 Hanlon(1970)의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부정적 증거의 존재에 대한 Brown과 Hanlon(1970)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Marcus, 1993; Gordon, 1990; Bohannon III, McWhinney, & Snow, 1990; Morgan & Travis, 1989; Bohannon III, & Stanowicz, 1988; Penner, 1987; Demetras, Post, & Snow, 1986; Hirsch-Pasek, Treiman, & Schneiderman, 1984). Hirsch-Pas-

1) 본 논문에서는 이현진(1992)에서의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을 실증적 증거로 바꾸어 지칭한다.

2) Brown과 Hanlon(1970)의 경험적 자료는 아동의 언어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이 갖고 태어나는 언어에 대한 본유적 능력(innate capacity)에 의해 발달된다고 주장하는 습득가능성이론(Learnability Theory)의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었다.

ek 등(1984)은 2세에서 5세 사이의 40쌍의 엄마-아동 간의 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Brown 과 Hanlon(1970)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명시적인 부정적 반응(Explicit Negative Response)이 아동 언어의 통사적 정확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Brown 과 Hanlon(1970)의 연구가 명시적인 부정적 증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들은 아동이 잘못된 말을 구사할 때 그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정하여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잘못된 말을 반복한다던가 다시 되묻기를 한다던가 하여 암시적으로 문장의 잘못된 점을 알려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Brown 과 Hanlon(1970)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반응인 '명시적인 부정적 증거' 외에 부정적 증거의 개념을 확대하여 암시적으로 아동 언어의 비문법성을 알려주는 단서까지를 부정적 증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Demetras 등(1986)은 성인의 아동 발화에 대한 반응 중 명료화질문(clarification question), 확인질문(confirmation question), 반복(repetition) 등은 소통의 흐름을 차단시킨다는 면에서 암시적으로 언어의 비문법성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결과는 Hirsch-Pasek 등(1984)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암시적 반응이 아동의 문법적인 발화와 비문법적인 발화에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후 Bohannon III와 Stanowicz(1989), Penner(1987)들은 Hirsch-Pasek 등(1984)과 Demetras 등(198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언어 습득에서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Implicit Negative Evidence)의 역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이현진, 1992; Marcus, 1993; Gordon, 1990; Morgan & Travis, 1989; Pinker, 1989). Morgan과 Travis(1989)는 그들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아동이 발화

한 말을 확장시켜 반복하거나 명료화를 위한 질문이 문법적인 문장에 대해서보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에 더 빈번하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반응들이 성인 전체 반응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것이기에 이러한 단서가 아동의 언어 습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동의 문법적인 오류가 사라지는 시기가 부정적 반응이 주어지는 것과 유관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Gordon(1990)은 이와 같이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성인의 반응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동 언어의 비문법성을 벗어나게 해 준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암시적 부정적 증거의 역할을 인정하는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논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적 증거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한국어 자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현진(1992)에서는 한 아동의 2년0개월에서 2년11개월 사이의 산출 자료와 2년10개월에서 3년5개월 사이의 또 다른 아동의 산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어에서도 아동의 문장표현에 대한 암시적인 부정적 단서에 대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재조명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한 아동의 2년0개월에서 3년3개월 사이의 종단적 산출 자료를 분석한다. 연구 2에서는 종단적 연구가 가지는 단점을 고려하여 2년0개월에서 2년11개월 사이 12명, 3년0개월에서 3년11개월 사이의 아동 10명, 4년0개월에서 4년11개월 사이의 아동 8명의 산출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 1

방법

피험 아동은 한국의 중류가정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여자 어린이로서 2년0개월에서부터 2년9개월까지는 매주 1시간씩, 그리

고 2년10개월 에서 3년3개월까지는 2주에 한번씩 1시간 엄마와의 대화를 피험 아동의 엄마가 녹음하였다. 그러나 2년6개월에서 2년7개월 사이의 자료는 녹음자의 사정으로 녹음할 수 없었기에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총 13개월동안의 발화 내용이었다.

아동언어의 오류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음성학적인 오류나 의미론적인 오류를 제외한 통사적인 오류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의 피험 아동이 보이는 오류들은 이현진(1992)의 4가지 분석 기준에 포함되기에 본 연구에서도 이현진(1992)에서의 4가지 기준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현진(1992)에서는 의존 명사 '거'의 잘못된 사용, 주격 조사 '이'와 '가'의 잘못된 사용, 동사 어미 활용에서의 오류, 부정문의 어순에서의 오류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오류 분석 기준은 의존 명사 '거'가 자립명사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경우이다(예, '큰 피' 대신에 '큰 거 피', '기인 꼬리' 대신에 '기인 거 꼬리'). 두 번째 기준은 조사의 사용이다. 주격 조사 '이'와 '가'의 같이 출현하는 경우('자국이' 대신에 '자국이 가')나 주격 조사 '는' 앞에 주격조사 '이'를 첨가하는 경우('곰은'대신에 '곰이는')등이다.³⁾ 세 번째 기준은 동사 어미 활용에서 오는 오류들인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예) 요기 앉어구(요기 앉구)

엄마가 해줘 주세요.(엄마가 해서 주세요)
볶고 살짝(볶고 살짝)
만들어셔야지요(만들어야지요 또는 만드셔야지요)

꼬꼬댁은 아옹이의 잡아 먹으구(꼬꼬댁은 아옹이를 잡아 먹구)

네번째 오류는 부정문 어순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 '체언+이다'의 경우는 서술격 조사 '이다' 앞에 부정 표시 형태소인 '안'을 삽입한다(남기심과 고영근, 1985). 본 자료에서도 이현진(1992)에서와 처럼 부정 형태소 '안'을 '체언+이다' 구조 앞에 놓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예, 안 똑똑이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은 이상의 5가지 기준으로 비문법적 표현을 찾아내어 그에 상응하는 문법표현을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반응 분석 기준

아동 발화에 대한 성인의 반응을 이현진(1992)에서와 같이 '명시적 반응', '같은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대된 반복', '문장변경', '확인 질문', '대화 계속', '무반응' 등의 8개 범주로 부호화하였다. '명시적 반응'은 Brown 과 Hanlon(1970)이 사용했던 기준으로서 "아니 틀렸어, **가 아니라 **지"라고 아동의 잘못된 표현을 명시적으로 수정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 '문장 변경'은 아동이 발화하는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반복해 주는 경우이다. '문장 변경'과 '명시적 반응'과의 차이는 '명시적 반응'은 틀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문장을 수정해 주는 반면에 '문장 변경'은 틀렸다는 명시적 지적 없이 단지 아동의 비문법적인 문장을 문법적 문장으로 수정하여 반응해 준다는 것이다. '같은말 반복', '확대된 반복', '단축된 반복'은 모두 아동의 말을 반복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같은말 반복'은 아동

3) 이현진(1992)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가'의 잘못된 사용만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주격격 조사 '는'이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와 주격조사 '이'와 특수 조사 '도'가 같이 나오는 경우(예, 창문에도)도 포함시켰다.

이 산출하는 말을 글자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이고, 아동의 발화한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단축된 반복'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이 발화한 표현이 문법적이던 비문법적이던 그 표현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는 '확대된 반복'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확대된 반복'은 일부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 확장'(Morgan & Travis, 1989) 또는 '확장된 반복'(Bohannon III & Stanowicz, 1988; Demetras et al., 1986)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문장 확장'이나 '확장된 반복'에서는 문법적 수정 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반응 뿐만 아니라 비문법적 문장을 수정하는 반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구분하여 아동의 발화를 수정 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만을 '확대된 반복'에 분류하였고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수정은 '문장 변경'으로 따로 분류하였다.⁴⁾ '확인 질문'은 아동의 발화를 확인하는 경우인데 "응?" 또는 "뭐라고?" 등으로 아동에게

되묻는 질문을 포함한다. '무반응'은 아동의 발화에 대해 엄마가 반응하지 보이지 않는 경우이고 '대화계속'은 아동의 발화 내용과 관계 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

피험 아동의 반응 빈도가 표1에 정리되어 있다.

이상의 8개의 범주 중에서 '명시적 반응'과 '문장 변경'은 비문법적 문장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반응이고 나머지 6개의 범주는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 모두에 주어질 수 있는 반응들이다. 우선 '명시적 반응'과 '문장 변경'이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전체 반응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자료에서 '명시적 반응'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반응은 없었다. 이것은 이현진(1992)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문장 변경'의 경우는 19번이 나타났는데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총 반응(148)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84%정도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문장 변경'이 실증적 증거인가 부정적 증거인가에 대한 논의를 접어 놓고 부정적 증거라

표 1.

성인반응	의존명사 '가'		조사 오류		동사어미 오류		부정문 어순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같은 말 반복	2	6	22	5	15	20	9	4
확대된 반복	3	2	9		4	1	2	1
단축된 반복			1		1			
확인질문	2		5	1		8	6	
대화 계속	10	9	71	5	59	47	30	9
무 반응	6		21		19	11	2	
문장변경				1		18		
명시적 반응								
계	23	17	129	12	98	105	49	14

4) 이에 대한 논의는 이현진(1992)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5) Grimshaw & Pinker(1989)는 '문장변경'이 부정적 증거라기 보다는 실증적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가정한다 할 지라도 이것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⁵⁾ 또한 비문법적 문장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명시적 반응'과 '문장 변경'이 전체 반응에서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은 아동과의 대화에서 엄마가 아동 문법성에 직접 관계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두 반응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범주에서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성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chi-자승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엄마의 반응의 분포가 .05수준에서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chi^2(5)=13.08, p<.05$). 그러나 이현진(1992)에서 언급했듯이 이 6개의 범주 중 '대화 계속'과 '무반응'이 소통적인 측면에서도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범주가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로 간주하여 '반복'과 '확인 질문'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아동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나 아동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침묵하고 있는 것조차가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대화 속에서의 모든 상호 교환적 반응들은 모두가 소통을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언어 소통의 차단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화 계속'과 '무반응'은 문법성에 대해 암시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다는 자연스런 대화의 흐름으로 보고 이 두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4범주, 즉 '같은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대된 반복', '확인 질문'에 대하여 chi-

자승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이 4개의 반응이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에 다른 분포를 보이지 않았다($\chi^2(3)=5.60, p>.05$).

영어권 연구에서 보면 같은말 반복(exact repetition)은 비문법적 문장보다는 문법적 문장 다음에 더 빈번하게 주어지고, 확인질문이나 확대반복, 문장변경등은 문법적 문장 다음보다는 비문법적 문장 다음에 더 많이 주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Bohannon III & Stanowicz, 1988; Demetras et al., 1986). 본 연구에서의 반응 기준이 이들의 기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반복', '확대된 반복', '확인질문'의 4범주에서의 성인 반응 빈도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표 2.

	문 법	비문법
정확한 반복	16.05%	23.65%
확대된 반복	6.02%	2.70%
확인 질문	4.35%	6.08%
기 타	73.58%	67.57%
계	100.00%	100.00%

본 연구 결과에서는 영어권 연구에서와는 달리 '정확한 반복'과 '확인질문'이 문법적 문장보다는 비문법적 문장에 약간 더 많이 주어졌고 '확대된 반복'은 비문법적 문장보다는 문법적 문장에 더 많이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Hirsch-Pasek 등(1984)은 엄마가 아동의 비문법적인 문장을 반복해 주는 경향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세 아동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아동의 비문법적인 발화를 문법적

6) Hirsch-Pasek 등(1984)은 3세를 기점으로 엄마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년5개월과 2년8개월 사이를 경계선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2년5개월 때의 아동의 발화와 2년8개월에서의 아동의 발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볼 수 있었고 또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녹음자의 사정으로 2년6개월에서 2년7개월사이의 자료를 모을 수가 없어서 2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기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표 3-1 : 2년 0개월-2년 5개월

성인반응	의존명사 '거'		조사 오류		동사어미오류		부정문 어순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반 복	4	8	11	3	13	11	8	5
확인 질문	1		1	1		4	5	
대화 계속	3	4	7	4	13	16	20	5
무 반응			1		2	3	2	
문장 변경						14		
명시적 반응								
계	8	12	20	8	28	48	35	10

표 3-2 : 2년 6개월-3년 3개월

성인반응	의존명사 '거'		조사 오류		동사어미오류		부정문 어순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반 복	1		21	2	7	10	3	
확인 질문	1		4			4	1	
대화 계속	7	5	64	1	46	31	10	4
무 반응	6		20		17	8		
문장 변경						4		
명시적 반응								
계	15	5	109	3	70	57	14	4

인 발화보다 빈번하게 반복해 주었으나 3세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년0개월에서 2년5개월까지의 반응과 2년8개월에서 3년3개월까지의 반응을 분리하여 비교한다.⁶⁾

표 3-1과 표 3-2에서는 Hirsch-Pasek 등 (1984)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세 종류의 반복 범주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반복'에 해당되는 반응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문법적인 문장보다는 문법적인 문장에 더 빈번하게 제공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연령이 낮을 때(2년0개월-2년5개월)에 연령이 높을 때(2년8개월-3년3개월)보다 아동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경향이 높았다(표4 참조).

표 4

	문 법	비문법
2:0-2:5	21.3%	15.98%
2:8-3:3	11.55%	4.33%

연구 2

연구 1에서는 한명 아동의 종단적 산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단적 사례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발달적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를 모으는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하기에 일반화

시킬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 연구 결과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연령 아동들의 자료를 횡단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 아동의 성인과의 대화 내용을 1시간씩 녹음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전 사례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화 상대가 어머니였으나 본 연구 피험 아동들의 대화 상대는 엄마만이 아니고 친척 또는 친지등도 포함되었다.⁷⁾ 대화 상대가 엄마가 아닌 어느 경우에도 피험 아동들과 친숙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대상 연령은 2년0개월에서 2년11개월까지 12명, 3년0개월에서 3년11개월까지 10명, 4년0개월에서 4년11개월까지 8명 총 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 언어의 오류 분석 기준과 반응 분석 기준은 연구 1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결과

각 연령별 반응 빈도수가 표5에 정리되어 있다. 세 연령 집단 모두 '명시적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 '문장 변경'은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총 111반응 중 14개로서 1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암시적 소극적 증거'의 범주로 분류한 나머지 4개의 범주에서의 문법적문장에 대한 반응과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성인 반응을 비교하였다⁸⁾. 세 집단 모두 이 두 반응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집단 1: $\chi^2(3)=1.35, p>.05$; 집단 2: $\chi^2(3)=5.79, p>.05$; 집단 3: $\chi^2(3)=1.30, p>.05$).

논 의

영어권 연구에서 보면 암시적 부정적 증거가 아동 언어 습득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반복과 같은 특정 성인 반응이 아동이 발화하는 문장의 문법성 여부에 따라 다른 빈도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적 증거로 간주한다.

표 5-1 : 집단 1(2년0개월-2년11개월)(12명)

성인반응	의존명사 '거'		조사 오류		동사어미오류		부정문 어순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반복	1							
확인 질문								
대화 계속	1				7	7	2	
무반응			1		8	8		
문장 변경					3			
명시적 반응								
계	1	1	0	1	16	19	0	2

7) Bohannon과 Stanowicz(1988)은 아동의 대화 상대가 부모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 아동의 발화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화 상대를 구별하지 않고 분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 연구 2에서는 반복 반응의 비율이 매우 적기에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였다.

표 5-2 : 집단 2(3년0개월-3년11개월)(10명)

성인반응	의존명사 '기'		조사 오류		동사어미오류		부정문 어순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반 복	1				1	1		
확인 질문		3		1	1	1	1	1
대화 계속		8	2	6	5	12	3	1
무 반응		1	1	2	8	4		
문장 변경						8		
명시적 반응								
계	1	12	3	9	15	26	4	2

표 5-3 : 집단 3(4년0개월-4년11개월)(8명)

성인반응	의존명사 '기'		조사 오류		동사어미오류		부정문 어순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문 법	비문법
반 복			1	1				
확인 질문						1		
대화 계속	2	3	1	3	3	15		
무 반응		2		3	3	8		
문장 변경						3		
명시적 반응								
계	2	5	2	7	6	27	0	0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분석 논리를 따라서 한국 아동 언어습득 과정에서 암시적 부정적 증거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종단적 관찰 자료인 연구 1 과 횡단적 자료인 연구 2 모두에서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가 아동 언어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지 연구 1에서의 '정확한 반복', '확대된 반복', '단축된 반복', '확인 질문', '대화 계속', '무반응'등의 6개 범주에서의 반응이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사이에서 미약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했지만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여 '정확한 반복', '확대된 반복', '단축된 반복', '확인 질문' 등의 4개의 범주에 대해 chi-자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역시 의미있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현진(1992)에서와 일치되는 결과로서 언어 입력 자극에서 부정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암시적 부정적 증거의 역할은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Bohannon과 Stanowicz (1988)은 정확한 반복(exact repetition)에 해당하는 반응 중 90% 이상이 문법적 문장 다음에 주어졌고 문장변경(recast)과 확장된 반복(expanded repetition)으로 분류되는 반응중 70% 이상이 비문법적 발화 다음에 주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성인들이 차별적으로 주는 이 단서들이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짓는

다. Gordon(1990)은 통계적 수치에 근거한 Bohannon과 Stanowicz(1988)의 결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다. Gordon(1990)은 Bohannon과 Stanowicz(1988)의 주장에서처럼 문장 변경(recast)과 확장된 반복(expanded repetition)은 부정적 증거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반복(exact repetition)은 실증적 증거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문장 변경이나 확장된 반복의 경우는 70%정도가 비문법적 문장 다음에 오고 30%정도는 문법적 문장 다음에 주어진다. 실제 상황에서 아동은 이 암시적 증거들 중 어느 비율만큼이 문법적 문장 다음에 오고 어느 비율만큼이 비문법적 문장 다음에 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 문장 다음에 오는 30%정도의 단서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정보로는 정확한 언어를 추측해 낼 수 없다는 점을 습득 가능성 이론의 기본 가정하에서 지적하고 있다. Marcus(1993)도 문장변경이나 확장된 반복이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 모두에 주어진다는 면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의 문장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Gordon(1990)과 같은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부정적 증거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하겠다.

또한 부정적 증거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Hirsch-Pasek, Treiman, & Schneiderman, 1984). Hirsch-Pasek 등(1984)은 2세 아동의 경우는 비문법적 문장을 반복해 주는 경향이 높으나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성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Hirsch-Pasek 등(1984)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다. 연구1에서의 결과를 보면 연령에 관계 없이 비문법적 문장보다는 문법

적 문장을 자주 반복해 주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성인이 아동과 대화하는 과정이 아동이 발화하는 문장의 문법성에 주의를 기울여 아동의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정정해 주는 학습과정이라기 보다는 아동이 발화하는 정확한 표현을 강조해 줌으로써 아동 스스로가 그 언어 표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아동의 정확한 언어 표현을 반복해 주는 것은 실증적 증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서 본 연구의 자료에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실증적 증거로 분류되는 성인의 언어 반응이 아동 언어 습득에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 아동의 자료를 통해 제시된 것이기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험아동의 수를 늘이고 또한 연령의 구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 다른 논쟁으로는 부정적 단서들의 존재(existence)와 사용(use)과를 구별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있다(Marcus, 1993; Pinker, 1989). 이들은 암시적 단서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빈약하여 아이들이 사용(use)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성인이 아동이 산출한 문장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 아동이 그 다른 반응을 반드시 언어 발달을 위한 단서로 이용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현진(1992)은 한국어 자료에서 성인의 반응이 아동의 비문법적인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반복해 주는 '문장 변경'의 경우에도 아동들은 바꾸어준 문장 표현은 무시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부정적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빈약하고, 부정적 증거가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 부정적 증거를 아동이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언어 습득에서 아동의 발화에 대한 성인의 반응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명의 종단적 관찰 결과와 30명의 횡단적 관찰 결과 모두 이현진(199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첫째 비문법적 문장에만 주어지는 '명시적 반응'이나 '문장 변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았다. 또한 그 동안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로 간주되어온 '반복', '확인 질문' 등의 범주에 속하는 반응들이 아동의 문법성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부정적 증거의 역할은 아주 미약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남기심과 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 탐 출판사.
- 이현진(1992). 언어 습득에서의 부정적 증거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5(1), 111-124.
- Bohannon, J. N., III & Stanowicz, L.(1988). The issue of negative evidence : Adult responses to children' language err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684-689.
- Bohannon, J. N., III, McWhinney, B., & Snow, C.(1990). No negative evidence revisited : Beyond learnability or who has to prove what to whom.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221-226.
- Brown, R. & Hanlon, C.(1970). Derivational complexity and order of acquisition in child speech. In J. R. Hayes(Ed.), *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pp. 11-53). New York : Wiley.
- Demetras, M. J., Post, K. N., & Snow, C. E. (1986). Feedback to first language learners : The role of repetitions and clarification ques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13, 275-292.
- Farrar, M. J.(1992). Negative evidence and grammatical morpheme acquis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0-98.
- Gordon, P.(1990). Learnability and feedback.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17-220.
- Grimshaw, J., & Pinker, S.(1989). Positive and negative evidence in language acquisi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341-342.
- Hirsh-Pasek, K., Treiman, R., & Schneiderman, M.(1984). Brown & Hanlon revisited : Mothers' sensitivity to ungrammatical forms. *Journal of Child Language*, 11, 81-88.
- Marcus, G. F.(1993). Negative evidence in language acquisition. *Cognition*, 46, 53-85.
- Morgan, J. L., & Travis, L. L.(1989). Limits on negative information in language input. *Journal of Child Language*, 16, 531-552.
- Penner, S. G.(1987). Parental responses to grammatical and ungrammatical child utterances. *Child Development*, 58, 376-384.
- Pinker, S.(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Cambridge, MA : MIT Press.
- Wexler, K., & Culicover, P. W.(1980). *Formal principles of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MA : MIT Press.

Negative Evidence Revisited in Korean Language Acquisition

Hyeon Jin Lee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re-examine whether explicit or implicit negative evidence plays a role in Korean language acquisition. Two data sets are used for analysis. One set consists of longitudinally collected production data from one Korean girl whose age ranges from 2;0 to 3;3. The other set is composed of transcribed conversations from 30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2;0 to 4;11. Four types of syntactic errors that Lee (1992) has used are tabulated with slight modification; 1) the wrongly inserted the complimentizer 'ke'. 2) morphological errors in case-marking patterns. 3) morphological errors in inflectional elements of the verbs. 4) errors of word order in negative constructions. Maternal responses that have followed the children's sentences are assigned to one of the following 8 categories; 1) Exact Repetition 2) Contracted Repetition 3) Expanded Repetition 4) Corrective Recast 5) Confirmation Question 6) Topic Continuation 7) No Response 8) Explicit Response. Corrective Recast and Explicit Response are preceded only by the grammatical sentences, while 6 categories except these two are preceded either by the grammatical sentences or the ungrammatical sentences. The overall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sponse rates for Explicit Response and Corrective Recast are extremely low. 2) Adults do not respond differentially to children's well-and ill-formed speech in their use of repetitions and confirmation questions. In conclusion, neither explicit negative evidence nor implicit negative evidence play any role in Korean language acquisition. Our data straightforwardly replicate the results from Lee (1992).